건설업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에 관한 기초 연구

A Fundamental Study o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Labor Productivity in Construction Industry

박 환 표*

Park, Hwan-Pyo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labor productivity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n addition, It analyzed the construction labor productivity gap of the G7 countries based on data from the Korean Productivity Center.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struction labor productivity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based on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vealed a relatively low level and trend of continued decline.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ductivity of construction workers in the major G7 countrie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productivity is very large, with an average of 65.3 %. Therefore,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to improve productivity by investing in technology development to increase labor productivity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system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키 워 드 : 건설업 노동생산성, 건설업 취업자, 건설생산체계

keywords : productivity of construction Labor, construction employee,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건설업은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한국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 20년간 정체 수준이다. 또한 타산업에 비하여 건설 노동생산성은 감소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업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취업자당 건설업 노동생산성을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G7 주요국가와 건설업 노동생산성을 비교분석하여, 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산업 혁신 및 구조개선 등 정책수립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였다. 첫째,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비교 ·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생산성본부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건설업 노동생산 격차를 비교 · 분석하였다. 셋째, 이를 통한 현재수준의 건설업 노동생산성의 추이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분석

노동생산성은 일정시간이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과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일정기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노동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물적 노동생산성과 노동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을 나타내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구분된다. 물적 노동생산성은 생산효율이나 생산기술 수준 등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며 부가가치 생산성은 기업의 이익에 더 접근한 것으로 분배기준이나 임금지불 능력 등 가치창출 효과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따라서 부가가치기준의 건설업 노동생산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2016년에 건설업은 59.9로 제조업(102.8)과 서비스업(93.0)에 비하여 각각 58.3%, 64.4%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10년간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0.74%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복합 다기화된 건설생산체계, 설계변경, 비숙련 외국인 건설노동자 증가, 기술개발 투자 미흡, 건설자동화의 현장적용 미흡 등으로 볼 수 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공학박사, 교신저자(hppark@kict.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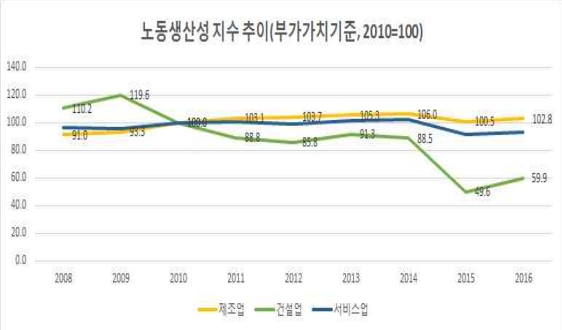

그림 1. 산업별 노동생산성 지수 추이(부가가치기준)

그림 2. 건설업 취업자 증가율(%)

2015년에 우리나라 건설업 노동생산성은 취업자당 38,956달러(PPP 적용)로 G7 국가대비 평균 65.3% 수준이고, 미국의 63.5%, 일본의 77.1%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건설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볼 때, G7 국가는 평균 153.2(2015년)로 나타났고, 격차는 증가 추세이다. G7 국가의 건설업 노동생산성 순위는 캐나다, 프랑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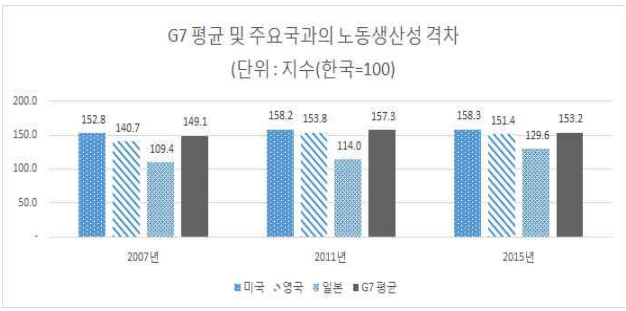

그림 3. G7 국가 평균 및 주요국과의 건설업 노동생산성 격차

그림 4.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표 1. 한국과 G7 국가의 2015년 건설업 노동생산성 비교

국가	노동생산성 (취업자 기준, PPP 적용 US$)	각국대비 한국수준(%)	국가	노동생산성 (취업자 기준, PPP 적용 US$)	각국대비 한국수준(%)
한국	38,956		일본	50,496	77.1
독일	51,843	75.1	캐나다	77,309	50.4
미국	61,657	63.2	프랑스	64,538	60.4
영국	58,980	66.0	G7 평균	59,691	65.3
이탈리아	53,016	73.5			

※ 출처 : 2017년 노동생산성, 한국생산성 본부

3. 결 론

본 연구는 건설업 노동생산성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G7 국가의 건설업 노동생산성을 비교 · 분석해 보면, 평균 65.3% 수준으로 생산성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내 건설업체나 정부는 건설업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으로 생산성향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업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도출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2018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요사업(과제명: 건설산업의 글로벌 건설 경쟁력 평가를 통한 해외건설 Big 이슈 개발(Ⅲ))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을 밝히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2017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한국생산성본부
2.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